

「마르틴 루텔」의 生誕 四百五十年, 現代 宗教에 있어서의 「루텔」의 課題(二)

…集團的 神秘主義와 基督

申南澈

現代 宗教에 있어 서의 여러 가지 問題는 吾人에게 一見하여 그 □□를 가리지 못 할 만치 多岐的이고, 따라서 그 內面的 自己潰滅的 煩悶은 언제 解決될는지 몰을 만치 絶望的이다. 世界本質로서의 神의 究極的 支配의 理念은 世界發展의 □劇的 必然으로서 一切를 그 赤裸裸한 모양에서 暴露하고 있다.

眞正한 宗教改革의 프로테스탄트의 世界認識의 理想은 今日에 있어 서는『사랑과 眞理』로서 現實的 人間에 作用하기에는 너무나 戲畫的인것같이 보여진다. 그러나 그러한 루텔의 汎神의 宗教의 人間(個人으로서의) 中心의 哲學體系가 集團的 意識에 강한 現代에 있어서 한 개의 새롭은 啓示로써 나타나는 듯이 보인다. 前世紀의 中葉에 基督教 社會主義운동이『예수그리스도』의 프로테스탄트의 精神의 『純粹한』復活에 있어서 『빛나는』 첫 거름을 내딛이게 된 것을 보았다.

暴力을 쓰지 않고 『사랑과 平和』로써 皮를 보지 않고 社會正義의 實現에 힘쓰라고 하였다. 이 運動은 一八四八年 二月 革命後에 英國에서부터 始作되어 一九二〇年『基督教 勞動組合 國際聯盟』이 和蘭에 생기게까지 □□되어 왔다. 暴力行爲 階級鬪爭을 否認하고 立法手段에 依하여 社會正義 經濟的 地位를 改善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運動이 보이는 明白한 思想的 依據는 루텔의 汎神論에서 그 새롭은『날개』를 얻으라는 個人中心의 意識이었다. 內面的인 自我의 敬虔한 救濟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內面的인 □□한 意識을 이 運動以前에 있어서 칸트哲學에서 發見할수가 있다. 倫理的 自由의 世界로서의『目的의 王國』은 個人의 純化에 依하여 到達할수있는『神的 實踐의 王國』이었다. 이러한『王國』을 基督教 社會主義運動은 目標로하고 잇는듯이 보인다. 루텔에 있어 서의『예수그리스도의 神秘』를 敎皇의 原罪로부터 解放하여 『理性的 光

』을 빛이여 人間에 接近시키려든

宗教哲學은 오래 동안 프로테스탄티즘을 信奉하는 國家에 있어서 支配的 이었다. 『예수그리스도』를 崇拜하는 純精神的 理念을 現實的 利益과 戰爭으로 더부러 妥協시키려든 것이다. 『天上에 계신 예수』를 地上에서 經驗하려는 神秘的 態度—하물며 『利益』中心의 制度우에서 그것을 集團으로써 經驗하려는 態度—그것이 第一期의 現代宗教에 있어 서의 集團的 神秘主義라고 할 수 있으리라. 나는 所謂 基督教 社會主義를 이같이 보려고 한다.

이러한 宗教的 運動에 있어 서는 이른바 『聖書主義』, 『福音主義』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主觀主義哲學을 土臺로한 個人的 救濟가 最前面에 나오게 되는 것이 었다. 個人은 『永遠한 罪人』으로서 規定되었었다. 그곳에 神學的—프로테스탄트의 썬시미즘 있었다. 칸트의 哲學的 原罪說도 이것과 關聯하여 생각되리라. 이러한 『永遠한 罪人』인 個人的 救濟는 上述한바와 같이 一定한 集團的 意識을 굳게 함에 依하여 可能하게 되었었다. 宗教의 民族化 運動에서 볼 수 있는 諸傾向은 吾人에게 이것을 말하야 주고 있었다. 이러한 民族化的 運動—換言하면 國家單位의 宗教運動(更히 換言하면 一定한 經濟□을 單位로한)의

國際的 結成 으로서의 『基督教 勞動組合 國際聯盟』은 現代에 있어 서의 루텔의 課題의 一形態라고 볼 수 있으리라.

그러한 基督教 社會運動에 나타난 루텔의 課題에 있어 서의 『神單獨聖, 所造一切惡』이라는 根本動因에 依하여 人間中心의 主觀主義는 自己矛盾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 矛盾은 如何히 하여 克服되었는가?

歷史的인 個人的問題가 루텔에 있어 서는 宗教的으로 取扱되었었다. 그 點에 歷史發展의 法則性을 본다. 그러나 그것은 福音主義의 原罪說과 內面的으로 妥協할 수 없었다. 이곳에 現代 宗教哲學에 있어 서의 煩悶이 內在한다. 『술라이헬마헬』, 『□□지』 등의 批判的 宗教思想도 窮極的으로 이 問題를 解決하지 못 하였다. 그리하여 最近에 와서 카톨릭의 宗教觀이 公然하게 『實踐性』을 問題삼고 나오기까지의 宗教哲學의 步調는 實로 荊棘의 險路이었다. 그러면 그러한 險路를 밟아온 그 矛盾은 現代에 있어서 카톨릭 神學, 辨證法的 神學, 과씨슴의 神學 等으로 表示할수있는 一聯의

宗教思想 에로 整然하게 止揚되었는가?

事實로 止揚되었었다! 이 止揚된 局面을 나는 第二期의 集團的 神秘主義라고 말하겠다. 第一期의 그것에 있어 서의 人間中心의 救濟理念은 그것보다 더 切實하고 通□한 問題에 依하여 代置되어있다. 最後的인 危機의 問題가 內包되어있는 것이다. 國家! 國家가 最前面에 나와 있는 集團的 精神主義이다.

그러나 『個人』의 問題는 아직도 루텔의 餘韻을 가지고 있다. 이 集團主義의 形態인 辨證法的 神學은 루텔의 宗教改革의 精神을 重視한다. 그러나 權力의 앞에 무릅을 꿇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天上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永遠 不可捉의 啓示로서 이 權力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有限한것은 無限한것을 包含하지 않는다』라는 辨證法的 神學의 根本命題는 이 神秘的 集團主義의 權力行使를 援助하고 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形而上學 啓示로서 存在를 救濟하려고 萬遍없이 빛이고 잇는 것이다! 『啓示(오펜바룽그)의 뮤토스』가!